

보도자료		바른 감사, 바른 나라		
		 감 사 원 www.bai.go.kr		
배포일자	2023. 9. 19.(화)	보도일시	2023. 9. 20.(수) 14시 이후	
제 공	홍보담당관실(☎02-2011-2491)	담당부서	사회·복지감사국 제1과 (☎02-2011-2411)	총 30매

「출연·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」 주요 감사결과

“공공기관의 부실·방만경영, 불공정 채용, 복무기강 해이 등 고질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,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 관리·감독 체계도 취약, 개선 필요”

개 요

1. 감사 배경

- 5년간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증가율이 50%(29→43조)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기관의 효율성·책임성 제고 노력은 미흡, 이에 출연·출자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감사 실시

2. 지적 요지

- 공공기관이 방만경영, 사업관리 부실, 별도자금 운용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, 이를 관리·감독할 재정당국은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효율적 재정운용·관리에 한계 노정
 - 한편, 공공기관의 퇴직자 챙기기, 성과급 파다 지급, 노조 우회 지원 등 “제 식구 챙기기식”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, 불공정채용·특혜 계약·복무위반 등 위법·부당 사례도 다수 확인 ➡ 문책 등 엄정처리 요구
- 출연금·출연기관 관리체계 역시 내·외부 감독 기능이 취약하고, 조직·예산 운영의 투명성·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➡ 제도적 개선과제 제시

㉔ 소극행정, 부실한 사업관리 등 기관의 주요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례 확인

V.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업무를 소극적·태만히 수행하는 등 제도취지 훼손 ㉕~㉗쪽

□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‘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’ 및 ‘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’를 시행 및 운영

[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관련]

○ 국토부는 현 규정상 민간인증기관에 고용된 에너지평가사(41명, 전체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명)만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, 급증하는 인증수요에 대응이 어려운데도 개선안 미마련

- 그 결과 '20~'22. 10월까지 실시된 인증 평가 10,152건 중 3,777건 (37.2%)을 인증기관 4곳에 소속된 평가사 10명이 처리하는 등 소수 기관 소수 평가사에게 인증 업무가 편중되어 내실 있는 평가 수행이 곤란

○ 이에 '22. 11월 1개월간 발급된 108건의 인증을 점검한 결과, 24건 (22.2%)은 평가사가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채 인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공단은 이를 점검·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고,

- 인증기관들이 냉방설비가 설계도면에만 없으면 냉방 에너지소요량을 0으로 산정하고 있는데도,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○ 감사기간 중 39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, 23개 건축물에서 에너지소요량이 변동되는 것으로 확인

※ (사례) ㉕소속 평가사가 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을 산정하면서, 건축주가 인증 직후 냉방설비(천장형 에어컨)를 설치한 사실을 미인지하여 미반영, 등급이 기존 1+에서 1등급으로 하락, 따라서 ㉕건축물에 대한 인증취소 등 사후관리 필요

[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관련]

- 국토부는 「녹색건축법」에서 제로에너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의 요건을 불명확하게 실시하고 있으나, 아래 사항을 종합하면, “에너지평가사”를 제로에너지 인증업무 수행자격자로 규정할 필요

※ ①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②건축물에너지 인증규칙」에서 평가사의 업무 중 하나로 “제로에너지 인증업무”를 명시하고 있고 ③평가사 시험항목에도 제로에너지 관련 내용이 포함

- 그런데 감사결과, 제로에너지 인증업무 종사자 39명('22년) 중 평가사는 6명에 불과, 나머지는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인인 것으로 확인

- 또한 국토부는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유지·관리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, 공단은 인증 건축물의 (인증 후)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미점검

* BEMS(에너지 사용량 계측장비) 설치·운영, 에너지자립률(에너지소비량/생산량) 20% 이상 등

- 감사결과, 점검대상인 9개 건물 중 5개 건물이 에너지 자립률을 산정하거나 에너지 인증기준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고,
- 92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BEMS 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, 예산 부족으로 운영하지 않거나(5개), 고장이거나(5개), 데이터 수집 등 필수기능이 구현되지 않고 있는(44개) 등 인증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

조치사항

- 국토부에 에너지 평가사 활용 방안, 인증 유지·관리 기준, 제로에너지 인증 업무 자격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, 에너지공단에 인증기관 관리·감독을 강화하도록 통보하고, 법정 실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